

제48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대 회 사

오늘은 본 협회가 매년 빠짐없이 개최해 온 제 48회째 전국농업기술자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뜻 깊은 대회가 되도록 참석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국의 선도농가들은 48년 전, 일제강점하에서 핍박을 벗어나 해방과 6.25 한국전쟁 등 혼란기를 겪으면서, 굶주린 배를 어떻게 채우고 긴긴 봄날의 보리 고개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고민하며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이라는 3대 혁명의 기치 아래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농업기술자대회는 그 연륜을 더 할수록 뜻 있는 많은 농민들이 모였고, 3대 혁명을 외치고 다짐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풍요롭고, 조화롭고, 오순 도순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황량한 논과 밭, 산과 들에서 굳건한 동지들이 의지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리들의 실천은 인간으로서 생존에 필수요건인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이 되도록 하였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세계의 경제·문화·스포츠 강국으로써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우리들의 땀과 눈물로 얼룩진 자랑스럽고 고귀한 일들이 점차 빛을 바래가고, 오히려 그런 노력들이 왜소하게 폄하되고 있지만, 본 협회가 존립하는 한 여러분의 그 고귀한 3대혁명의 실천은 무엇보다도 높게 평가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초창기부터 참여하였던 원로 회원 분들, 지금도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주역을 담당하신 분들, 마을을 지키고 살맛나게 가꾸는데 지역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 그 동안 본 협회가 다양하게 개설한 각종 교육에 참여하여 농업·농촌발전의 한 부분을 담당하겠다는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농촌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모두들 희망이 없다고 하는 우리 농업·농촌의 앞날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밝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대회는 과거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동지적 만남을 자축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방화의 물결에 힘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는데 선도농가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농업·농촌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하는데 선도농가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우리 농촌이 아니, 국가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도농가는 시대의 흐름이나 개방의 파고가 아무리 높고 거셀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준비하여 도전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선도농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용기와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농업·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수많은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만 지난 7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확신을 갖고 있는 도농상생과 공존을 위한 진실된 녹색교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살맛나는 농촌 누가 만들 것인가?”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은 우리 농업계만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요 소비자인 일반국민과 함께 찾는 것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분들과의 진솔한 교류를 통해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인식시키고 도농상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농업·농촌을 살려야 된다고 백번 외치는 것보다 도시민들이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됩니다.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여가와 푸르름, 전통문화와 역사 그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공간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다시 또 찾고 싶은 농촌을 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의 바람은 충족시키기 위해 고품질 생산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특히 지킬 가치가 있는 농촌 가꾸기에 전념을 다 하였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 도농녹색교류운동에 참여하는 농민들 스스로가 살맛나고 한 번 찾은 도시민들은 살고 싶고 농촌, 즉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농촌으로 서서히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농촌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농촌 가꾸기의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농업·농촌에 접근, 이해, 사랑, 정착까지 가능하도록 국민농원 갖기 운동도 추진하였습니다.

꽃 한포기, 고추 한그루라도 심는 것부터 시작하여 농업에 대한 접근과 이해는 농업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도농녹색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규모화나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하는 농정의 방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가족이 중심이 된 생활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 더욱 더 경쟁력 있다고 확신합니다.

생활농은 자급, 취미, 건강, 보람, 전원생활을 위한 농업이며 일상적인 농촌생활의 일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며, 장수시대를 맞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건강하고 보람된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도 이제 국민 사이에 서서히 이해가 되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농이야말로 점차 황폐화 되어가는 농촌을 지키고 가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농촌을 살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농촌 가꾸기, 생활농의 확산, 국민농원 갖기 등을 강조한 것은 이것을 통해 위기의 농업·농촌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 농민들의 힘으로 만든 어렵습니다. 도시민들과 어깨동무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꿔가며, 정부의 적극적인 농정의 전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도시민과 더불어 함께 살맛나는 농촌을 당당하고 힘차게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㉞

2007년 11월 28일

제48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장 강 춘 성